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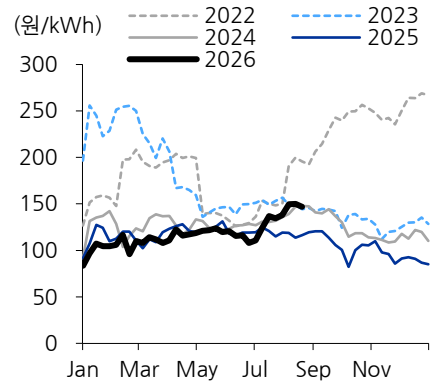
지역별 요금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시작

-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이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현행 전기요금에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하고,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을 대상으로 지역별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전국을 수도권 남부·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지방 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을 반영해 최종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조합해 결정한다.
- “ 할인폭은 수도권 남부 0~1원/kWh,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kWh, 중부권 최대 15원/kWh, 남부권 최대 18원/kWh이다. 2025년 산업용 평균요금 181.9원/kWh 대비 최대 약 10%다. 산업계 전체 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8조원으로 추산된다. 18원/kWh 차이는 연간 1TWh를 사용하는 사업장 기준 약 180억원으로, 기존 공장의 이전보다는 신규 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 “ 중요한 것은 이번 정책이 단순한 지방 전기요금 할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초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이 부족한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남는 지역은 낮추는 구조에 가까웠지만, 이번에는 인상 없이 할인만 적용했다. 순수한 LMP라기보다 계통가격과 균형발전 정책을 결합한 혼합형 제도이며,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수용성을 우선해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먼저 깨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 “ 소비자에게는 전력이 남는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가격신호를 주고, 발전사업자에게는 전력이 부족한 지역으로 투자하라는 신호를 동시에 주는 구조다. 정부는 소매요금 차등과 함께 도매시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서로 다른 거래가격을 적용할 계획이어서, 도매시장 가격체계 변화에 따라 발전사업자별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LNG 발전소 등 시장가격 노출도가 높은 발전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발전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 “ 한전은 2.8조원의 할인 재원을 전력구입비 절감, 송전비용 세분화, 정부 지원과 일부 자체 부담으로 마련한다. 따라서 실제 부담구조를 확인해야 하나, 단기 실적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더 큰 변화는 전국 단일요금이 깨지고 지역별 원가와 송전비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지역요금제→도매 지역가격제→망사업 가치 분리→소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전력시장 개편의 나비효과가 시작됐다고 판단한다. 중장기 구조개편으로 시장 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공공요금의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며 국내 유틸리티 업종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PBR 기준 자유화되어 있는 경쟁 시장, 미국 유틸리티 평균 2.5배 이상, 일본/유럽 유틸리티 1.5배 이상).

업종투자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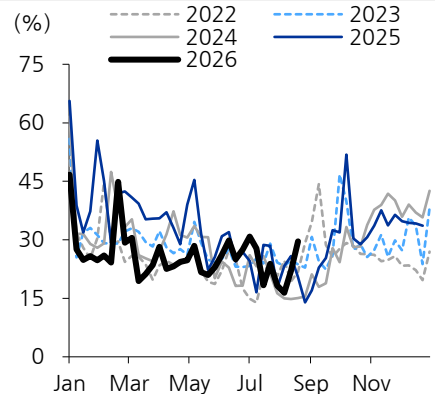
OVERWEIGHT

SM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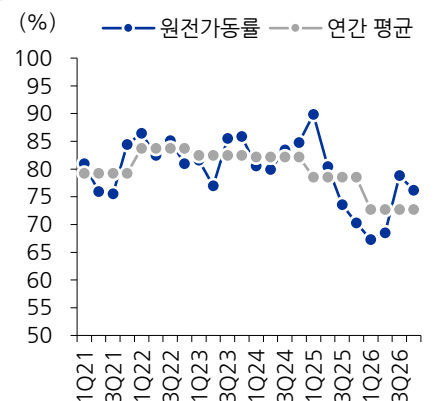
자료: EPSS, 유진투자증권

전력예비율 추이



자료: EPSS, 유진투자증권

원전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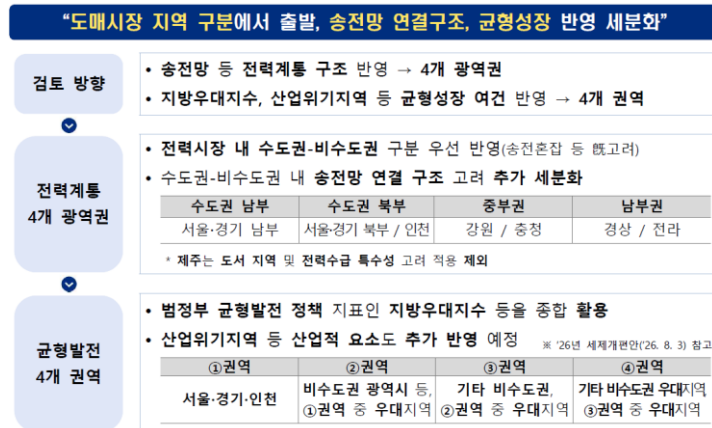
자료: 한수원, 유진투자증권

요금 설계안 - 기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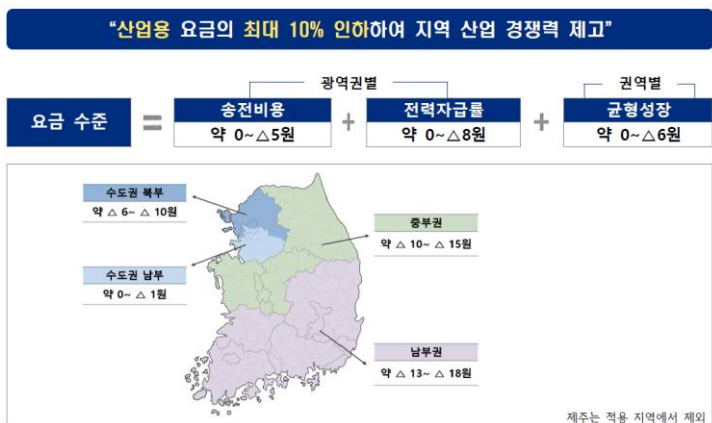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요금 설계안 - 지역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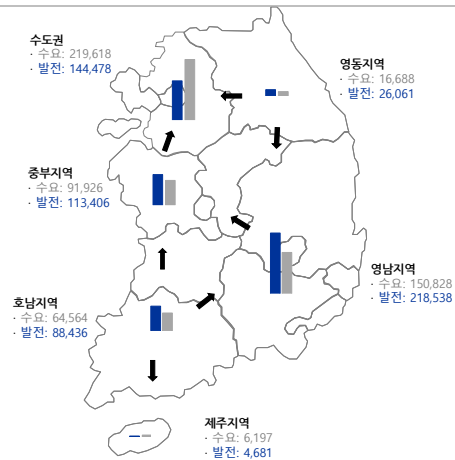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요금제 산정 결과



자료: 한국전력, 유진투자증권

지역별 전력 자급률



자료: EPSIS,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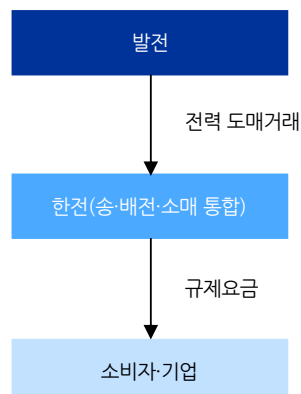
소매 전기요금의 구성

관련법령	경제주체	비용 구성		
판매(소매) 전기사업법 제16조	소비자	전기요금	제세공과금(+전력산업 기반금)	
	판매사업자 (KEPCO)	전력구입비용 (88.5%)	기타비용 (9.6%)	적정투자보수 (1.9%)
	발전사업자	연료비+운영비+건설비		
전력시장(도매) 전기사업법 제4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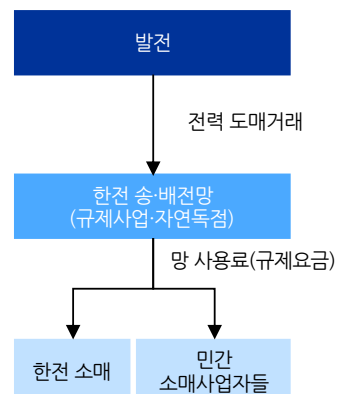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유진투자증권

전력시장 구조 개편 시나리오

[현행 구조]



[시나리오1: 망 독점 + 소매 경쟁]



자료: 유진투자증권 전망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동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3%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4%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3%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6.6.30 기준)